

# 임실치즈축제 '값진 타이틀'

### 대한민국 유망축제 선정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 글로벌 축제 성장 가능성

지난 해 대성공을 거둔 임실치즈축제가 2018년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임실치즈축제는 2차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6개 축제만 추가로 선정되는 유망축제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신규진입에 성공,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치즈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치열했다. 총 21개를 선정하는 유망축제 중 신규선정은 단 6개에 불과했으나, 무려 41개에 달하는 지자체 축제가 도전장을 내밀어 무려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기 때문이다.

군은 기존 유망축제에 이름을 올린 고창도양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 일드푸드축제가 이어 첫 신규진입 업체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전라북도 선정된 최우수 축제에 이어 얻은 값진 타이틀이었다.

그렇다면 임실치즈축제의 경쟁력은 무엇이었을까. 1차 심사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16개 축제 중 임실치즈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독특한 소재와 차별화된 프로그



임실치즈축제가 2018년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가운데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3회 임실치즈축제 자료사진.

램이 높은 점수를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실제 서구화된 소재인 치즈를 활용한 축제가 전무한데다가, 이를 소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은 유망축제 선정으로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축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면서 올해 축제 준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정부지원금에 힘입어 더 알차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은 올해 축제 일정을 3년째 같은 일정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확정했으며, 축제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관광형 글로벌 대표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 해 세 번째 축제를 준비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유망축제 진입에 성공하면서 임실치즈축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의 자랑 '신관사또부임행차' 성과

### 11년 연속 문체부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순수 남원시민이 만든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이 11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은 신규출향전 주요부문을 각색한 체험형 퓨전해학극으로 길거리 퍼레이드와 퓨전 마당극으로 구성된 남원의 대표 브랜드 상품으로써 매년 봄, 가을 주말(토,일)에 남원관광지와 광한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창단 한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은 전통문화예술분야에 기량과 예술 감각이 있는 남원시민을 공연단원으로 선발 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상설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아왔다.

그동안 창단 이래 450여회가 넘는 공연과 타 지역 방문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제10회 광주충장축제(2013년) 전국 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남원문화원 주관 남원향토문화대상(2014)과 남원시민의 정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신규공연단 양성교육과 특별 공연마인드 함양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연기념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에는 '남대문(남원-대구 교류프로그램)을 열자' 행사를 서울 도심권 보행전용거리인 세종대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영호남의 대표적인 도시 대구와 남원의 상설프로그램의 합동공연을 추진하여 영호남 화합의 큰 의미를 실현한다.

또한 수도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내내여행 박람회(2월)와 인사동과 다중집합장소, 대구, 부산 등 주요 행사장 등에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며 전국을 무대장축제(2013년) 전국 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 "공정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최선"

### 임실선관위 신입과장에 서홍석씨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신입과장으로 서홍석 사무과장(사진)이 부임했다.



서홍석 과장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와 지도과, 전주 및 익산을 거쳐 1월1일자로 이곳 임실로 자리를 옮겼다.

서홍석 사무과장은 취임소감에서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로 민뜻없는 선거관리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만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임실군선거위 직원모든은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신설지급으로 580명 추가 수혜

남원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 보훈수당을 월 5만원씩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송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도 보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하여 58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의 미망인, 무공수훈자 및 그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의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남원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로급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호국영웅 해피데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생일축하금 5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옥천인재숙 새단장 완료

### 기숙동 증축·리모델링 사업에 50억원 투입

순창 인재양성의 요람인 옥천인재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50억원을 투자해 진행한 옥천인재숙 기숙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옥천인재숙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과 식당, 체육단련장, 회의실, 강의실이 새롭게 들어서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번에 증축한 기숙동 건물은 여학생들이 사용하게 되어 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또 회의실, 자습실, 강의실을 갖춰 학습공간 부족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

특히 야외 테크, 남·여 체력단련실, 농구장, 족구장,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확대해 학생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해마다 대입합격에 골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던 옥천인재숙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해서 이번사업에 대한 설명과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학부모총회도 100여명의 옥천인재숙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한편 올해 순창옥천인재숙은 서울대 3명, 고려대 1명, 서강대 2명, 성균관



대 1, 한양대3, 이화여대1, 부산고대1, 한국교원대1, 경희대1, 원광대 한의예과 등을 포함해 인재숙 3학년 재학생 43명 중 31명이 주요대학에 합격하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정기가 마무리 되면 입학생 전원이 합격하는 신화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황숙주 군수는 "옥천인재숙은 이미 농촌지역 인재양성의 최고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숙동 증축 등으로 학생들이 학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강화한 만큼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의료사각지대 한의약 진료지원 호평

### 순창군,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재택방문 건강 관리

순창군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한의약 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약 재택방문 진료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약 재택방문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 개별상담, 건강관리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며 보살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한의약재택방문진료 등록자 91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며 한의사 6명과 전담인력 11명이 투입된다.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사로부터 침구, 뜸, 파스, 투약 등 한의약서비스

및 보건교육 및 개별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4일 순창읍 거동불편 어르신 7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한의약 재택방문진료 첫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직접 찾기가 힘든 대상자를 찾아가 실시해 어르신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정영권 보건지원장은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내원하기 힘든 의료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